

교회소식

1.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의 좌소를 찾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다음 주일(4월 3일)부터 St Luke's 교회(130 Remuera Rd)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예배의 회복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오후 1시(교회 학교도 예배 시간 동일), 2부 오후 2시 45분입니다(청년부).
3.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통독 8주 차로 이번 주부터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를 묵상하게 됩니다(민수기 31장 - 신명기 15장).
4.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5. 화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체별 성경 인물 연구가 이번 주 통가 공동체로 마무리 됩니다(통가 - 빌립, 오후 8시).

공동체	성경인물
통가	빌립 (행 8장)

6. 다음 주일부터 섬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오는 토요일 취침시에 시계를 한 시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예 10시 → 9시).
7. 화산 폭발 통가 재난 구호 헌금 추가로 \$150을 보냈습니다(합계 \$1,734).
8. 다음 주일은 월례회 주일입니다. 4월부터는 격월로 있습니다.
9. 예배 후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겨주신 최현철 집사가 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10. 제3회 남태평양 노회가 오늘 저녁 7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A p r i l

교회사역일지

4월 3일(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주일)
종려주일
4월 17일(주일)
부활주일
4월 18~22일
한 주간 저녁기도회
4월 24일(주일)
성찬주일

기도순서

4월 3일 (주일)
장경희 집사
4월 6일 (수)
강동호 집사
4월 10일 (주일)
박병민 장로
4월 13일 (수)
김명옥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박영선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24권 13호 2022.03.27

주일예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히브리서 14:15-16 ----- 인도자

*찬송 ----- 35장 ----- 다함께

*참회의기도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 285장 ----- 다함께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요한복음 19-13 ----- 인도자

찬양대 찬양 ----- 우리 주 십자가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 이태한 목사

찬송 ----- 91장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411장 (1,3절) -----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님들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선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귀한 생명들이 처참히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동역자님들께 평안을 여쭙니다. 선교지는 요즘 교회 아동부 팀에이저가 부흥이 되고 있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들은 정말 힘듭니다. 간, 쓸개까지 다 빼어 주며 수년을 공들여 키운 청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빈둥빈둥 놓고 있는 아이들을 취직 시켜주기 위해 직업훈련도 보내고 숭한 노력 끝에 직장을 얻으면 그때부터 교회를 졸업합니다. 이것을 막아 보려고 십수 년을 노심초사 애써 왔지만 내린 결론은 “선교사의 힘으로도 선교사의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 된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유스는 교회를 받치는 허리여서 3월 초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진이 빠지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사역이지만 다시 힘을 내어 보려고 합니다. 술, 담배, 마약, 섹스가 만연한 동네에 이것이 이들을 파멸로 이끌고 특히 왕성한 시기에 주변의 쾌락을 이기기야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던 침울한 하루였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안디시웨(13)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옴다가 다른 교회로 2년 전 옮겼는데, 주일 오후에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비록 친구 따라 교회를 떠났지만 가끔 나오곤 했는데, 복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동네 택시 오너들의 총싸움으로 여러 명이 죽었고...

폭동으로 새로 들어선 타운 사람들의 데모로 인해 아내는 사역지에 들어 오려다가 결국 돌아오고,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사역지에서 나오는데 불에 탄 타이어, 깨진 블록, 바위 같은 돌맹이 등이 온 도로에 깔려 있어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오는데 작은 차였으면 못 나올 뻔했습니다. 주변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험하구나! 생각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또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쓸 것을 보내주시는 동역자님들의 합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곳 선교지이지만 선교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주변에 여러분들을 불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외롭지 않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고 느슨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동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늘 건강 평안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2022년 3월 23일 남아공 김현태 선교사 배상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성전 이전 관례로 이번 주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나눔란

2022년 3월 20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빛을 증언하는 자> 요한복음 1:6-8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착각하면 사울 왕처럼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기에(삼상 13:13-14)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내신 자를 알기: 당시 율법교사나 철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이들과 달랐던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으며(6) 하나님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자신을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7). 요한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성령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에게 말씀을 비취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 6:43) 하십니다.

2) 빛과 빛의 증언자의 차이를 알기: 요한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 들임을 깨우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며(눅3:7) 당시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푸는 일 정도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요 1:27). 왜냐하면 회개하라 외쳤지만 용서할 권한과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과 빛과 생명이며 자신은 빛이 아닌 빛의 증언자라는 사실을(요 1:8) 명확히 알았기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오직 신랑이며 자신은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요 3:29). 아무리 회개하고 세례 받아도 많은 친교가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했던 것처럼(막 9:5) 사람을 높이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막 9:7) 기억하며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빛 자체가 아닌 빛의 통로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 알기: 빛을 빛이라 증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은 빛을 못 알아보게 하기 때문에(고후 4:4) 누군가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완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기적이며 새로운 탄생이며 혁명입니다. 비로소 눈을 떠 보게 된 빛의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한 자에게 또는 보고도 세상에서 편히 살고 싶어 못 본 척하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마 5:14).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막 10:45)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빛을 증언하며 한 영혼이라도 믿게 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예배의 회복이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2. 예수 중심 성경 읽기로 말씀과 함께 사순절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질병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위로가 있도록.